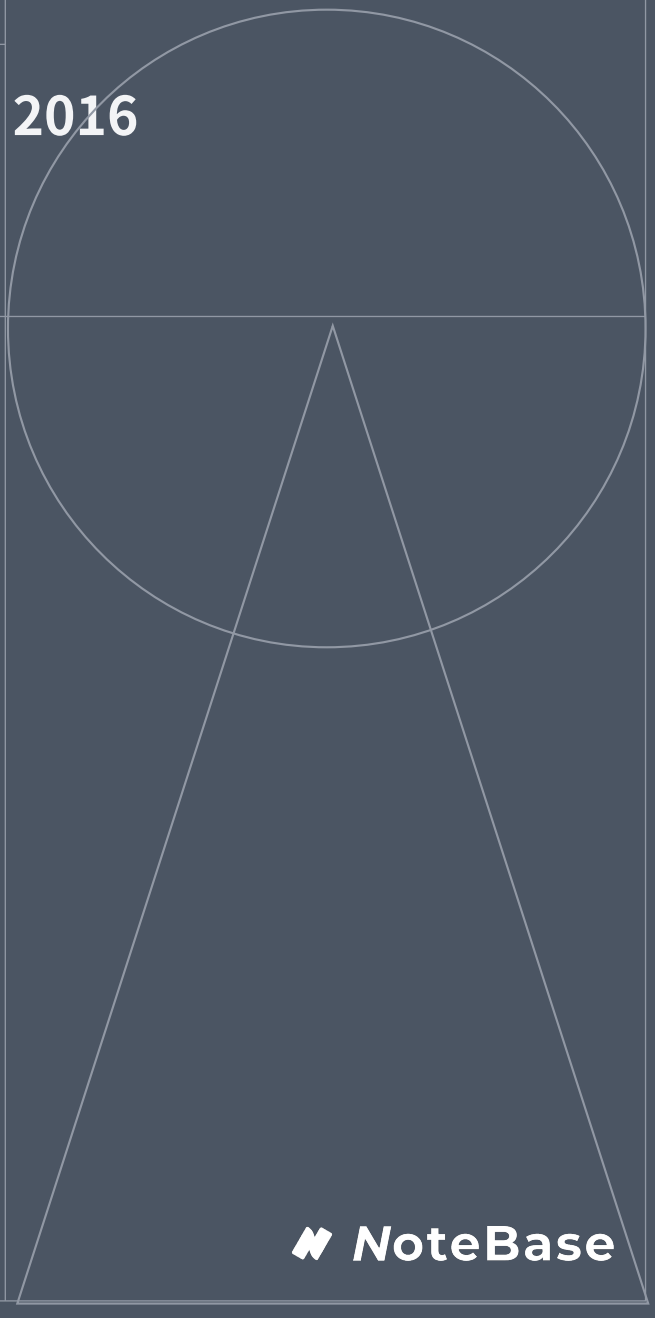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기상직/9급 · 국어 · 201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기상직/9급 · 국어 · 2016

공무원/기상직/9급 · 국어 · 2016

문 1. 밑줄 친 말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① 노란 곰 인형이 무척 이쁘구나!
② 밥이 찰져서 입안에서 살살 녹아.
③ 아이들이 햇님 얼굴을 보며 웃더란다.
④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는 참 감동적이야.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밑줄 친 말의 기본형이 표준어인지와 사이시옷 표기가 올바른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원칙으로 정한 말이다. '이쁘다', '찰지다', '잎새'는 표준어이지만, '해'에 높임의 뜻을 더하는 '-님'이 붙은 말은 사이시옷 없이 '해님'으로 적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이쁘구나'의 기본형 '이쁘다'는 '예쁘다'와 함께 표준어로 인정된다. 따라서 문장에 맞게 활용한 '이쁘구나'도 올바르다.
② O — '찰져서'의 기본형 '찰지다'는 끈기가 있고 차진 성질을 나타내는 표준어이다. '밥이 찰져서'는 올바른 표현이다.
③ X — '햇님'은 표준어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햇님'이며, '해'에 '-님'이 붙을 때는 사이시옷을 넣지 않으므로 '아이들이 해님 얼굴을 보며 웃더란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 '잎새'는 나무의 잎을 뜻하는 표준어이다. 따라서 작품 제목 '마지막 잎새'의 표기는 올바르다.

오답 포인트

'이쁘다'와 '찰지다'를 익숙한 구어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비표준어라고 판단하기 쉽다. 반대로 ③의 '햇님'은 발음에 이끌려 사이시옷을 적기 쉽지만, 표준 표기는 '해님'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낯설거나 구어적으로 들린다는 인상만으로 비표준어를 고르지 않고, 각 말의 기본형과 합성·파생 과정에 따른 표기를 확인한다. 특히 '해님'처럼 '-님'이 붙은 말은 사이시옷 유무를 따져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이쁘다·찰지다·잎새는 표준어이고, 햇님은 해님으로 적는다.

NoteBase

문 2. 다음 단어의 표준 발음으로 올바른 것은?

맞는, 않은, 핥네

① [맏는], [아는], [할네]
② [만는], [안는], [할네]
③ [만는], [아는], [할레]
④ [맏는], [안는], [할레]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받침 뒤에서 일어나는 비음화, ㅎ 탈락과 연음, 유음화를 적용하여 단어의 표준 발음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받침이 비음 ㄴ·ㅁ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맞는'은 받침 ㅈ이 대표음 [ㄷ]이 된 뒤 ㄴ 앞에서 [ㄴ]으로 바뀌어 [만는]으로 발음된다.
ㅎ 탈락과 연음은 '않은'에서 겹받침 ㄶ의 ㅎ이 탈락하고 남은 ㄴ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져 [아는]이 되는 과정이다.
유음화는 ㄹ과 ㄴ이 이어질 때 ㄴ이 [ㄹ]로 바뀌는 현상이다. '할네'는 [할레]로 발음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맞는’의 [만는]과 ‘않은’의 [아는]은 맞지만, ‘할네’를 [할네]로 표기한 부분이 틀렸다. ㄹ 뒤의 ㄴ이 [ㄹ]로 바뀌므로 올바른 발음은 [할레]이다.

② X
‘않은’을 [안는]으로, ‘할네’를 [할네]로 표기한 부분이 틀렸다. ‘않은’은 ㅎ이 탈락하고 ㄴ이 연음되어 [아는], ‘할네’는 유음화가 일어나 [할레]로 발음된다. 따라서 올바른 표기는 [만는], [아는], [할레]이다.

③ O
‘맞는’은 비음화로 [만는], ‘않은’은 ㅎ 탈락과 연음으로 [아는], ‘할네’는 유음화로 [할레]가 되므로 세 발음이 모두 옳다.

④ X
‘맞는’의 [만는]과 ‘할네’의 [할레]는 맞지만, ‘않은’을 [안는]으로 표기한 부분이 틀렸다. 올바른 발음은 ㅎ이 탈락하고 ㄴ이 연음된 [아는]이다.

오답 포인트

‘않은’의 글자 모양에 이끌려 받침 ㄴ을 앞 음절에 남긴 [안는]으로 판단하거나, ‘할네’를 표기 그대로 [할네]로 읽기 쉽다. 실제로는 ‘않은’에서 ㅎ 탈락 뒤 연음이 일어나고, ‘할네’에서는 ㄹ과 ㄴ 사이에 유음화가 일어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받침과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차례로 확인한다. 받침 ㅈ 뒤에 ㄴ이 오면 비음화를, 겹받침 ㄶ 뒤에 모음이 오면 ㅎ 탈락과 연음을, ㄹ 뒤에 ㄴ이 오면 유음화를 적용하여 발음을 적는다.

암기 포인트

맞는 [만는], 않은 [아는], 할네 [할레]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3. <보기>를 참고하여 ㉠~㉢에 들어갈 격조사로 적절한 것은?

> 孟ᄆᆡᆼ子ᄌᆞ(㉠) ᄀᆞᄅᆞ샤ᄃᆡ, 사ᄅᆞᆷ(㉡) 道도(㉢) 이시매 먹기를 ᄇᆡ브ᄅᆞ ᄒᆞ며 오ᄉᆞᆯ 덥게 ᄒᆞ야 편안히 잇고, ᄀᆞᄅᆞ치미 업스면 곧 즘승에 갓가오릴ᄉᆡ, …

< 보 기 >

>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는 '이'가 사용되었는데, 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경우로 나타난다. 자음 아래에서는 '이', 모음 아래에서는 'ㅣ', 그리고 'ㅣ'모음 아래에서는 생략되었다.

	㉠	㉡	㉢
①	이	ㅣ	생략
②	이	이	생략
③	ㅣ	ㅣ	이
④	ㅣ	이	ㅣ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 '이'가 앞말의 끝소리에 따라 '이', 'ㅣ', 생략 가운데 어떤 형태로 실현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주격 조사 '이'를 쓴다. 앞말이 'ㅣ'가 아닌 모음으로 끝나면 'ㅣ'를 쓰고, 앞말이 모음 'ㅣ'로 끝나면 주격 조사를 생략한다. 따라서 ㉠의 '孟子(맹자)'는 'ㅏ' 뒤이므로 'ㅣ', ㉡의 '사람'은 'ㅁ' 뒤이므로 '이', ㉢의 '道(도)'는 'ㅗ' 뒤이므로 'ㅣ'가 들어간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을 '이', ㉡을 'ㅣ', ㉢을 생략한 점이 모두 틀렸다. '孟子(맹자)'의 끝소리 'ㅏ' 뒤에는 'ㅣ', '사람'의 받침 'ㅁ' 뒤에는 '이', '道(도)'의 끝소리 'ㅗ' 뒤에는 'ㅣ'를 써야 한다. 올바른 배열은 'ㅣ-이-ㅣ'이다.
② X — ㉡의 '이'는 맞지만, ㉠의 '이'와 ㉢의 생략이 틀렸다. ㉠은 '맹자'의 'ㅏ' 뒤이므로 'ㅣ', ㉢은 '도'의 'ㅗ' 뒤이므로 'ㅣ'가 들어간다. 올바른 배열은 'ㅣ-이-ㅣ'이다.
③ X — ㉠의 'ㅣ'는 맞지만, ㉡의 'ㅣ'와 ㉢의 '이'가 틀렸다. ㉡은 '사람'의 받침 'ㅁ' 뒤이므로 '이', ㉢은 '도'의 모음 'ㅗ' 뒤이므로 'ㅣ'를 써야 한다. 올바른 배열은 'ㅣ-이-ㅣ'이다.
④ O — ㉠은 '맹자'의 모음 'ㅏ' 뒤이므로 'ㅣ', ㉡은 '사람'의 받침 'ㅁ' 뒤이므로 '이', ㉢은 '도'의 모음 'ㅗ' 뒤이므로 'ㅣ'가 들어간다. 세 자리 모두 <보기>의 조건에 맞는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주격 조사 생략을 모든 모음 뒤에 적용하면 ㉡을 생략하기 쉽다. 생략은 앞말이 모음 ‘ㅣ’로 끝날 때에만 일어나며, ‘맹자’의 ‘ㅏ’와 ‘도’의 ‘ㅗ’ 뒤에서는 ‘ㅣ’가 나타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빈칸 바로 앞말의 마지막 소리만 확인한다. 받침이 있으면 ‘이’, 받침이 없고 끝모음이 ‘ㅣ’가 아니면 ‘ㅣ’, 끝모음이 ‘ㅣ’이면 생략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자음 뒤 ‘이’, ‘ㅣ’ 아닌 모음 뒤 ‘ㅣ’, 모음 ‘ㅣ’ 뒤 생략이다.

NoteBase

문 4.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올바른 것은?

① 나의 소원은 조선의 독립이오.
② 앞으로는 일찍 와 주길 바래.
③ 오던가 말던가 네가 알아서 해라.
④ 종이비행기가 생각보다 잘 날라가서 놀랐어.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문장 종결형 '-이오', 동사 '바라다'의 활용, 선택을 나타내는 '-든가', '날아가다'의 표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문장을 끝맺는 '-이오'는 '이요'로 쓰지 않는다. '바라다'는 '바라'로 활용하며, 여러 대상이나 행동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할 때는 '-든가'를 쓴다. '날다'에 '-아 가다'가 이어진 말은 '날아가다'로 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조선의 독립이오'의 '-이오'는 문장을 끝맺는 종결형이므로 표기가 올바르다.
② X — 틀린 표현은 '바래'이다. 소망한다는 뜻의 기본형은 '바라다'이므로 '앞으로는 일찍 와 주길 바라'로 고쳐 쓴다.
③ X — 틀린 표현은 '오던가 말던가'이다. 과거의 일을 회상하여 묻는 것이 아니라 두 행동 가운데 어느 것이든 선택하게 하는 뜻이므로 '오든가 말든가'로 고쳐 쓴다.
④ X — 틀린 표현은 '날라가서'이다. '날다'에 '-아 가다'가 결합한 말이므로 '종이비행기가 생각보다 잘 날아가서 놀랐어'로 고쳐 쓴다.

오답 포인트

②는 말할 때 자주 쓰는 '바래'에 끌리기 쉽고, ③은 소리가 비슷한 '-던가'와 '-든가'를 혼동하기 쉽다. ④도 구어에서 들리는 '날라가다'를 그대로 적게 만드는 함정이다. 기본형과 문맥의 의미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단어의 기본형을 찾고, 어미가 나타내는 의미를 확인한다. 소망은 '바라다→바라', 선택은 '-든가', 과거 회상은 '-던가', '날다+-아 가다'는 '날아가다'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끝맺음은 '-이오', 소망은 '바라', 선택은 '-든가', 비행은 '날아가다'이다.

NoteBase

문 5. 다음 글에 드러난 각 인물의 상황과 가장 잘 어울리는 한자성어는?

승상이 한번 보매 크게 빠져 세상만사를 다 버리고 일시도 떠나지 아니하니, 송녀가 마음이 방자하여 최 씨를 초개같이 보아, 도리어 제가 부인인 체하되, 최 씨는 별말 없이 받아 주더라. 이러므로 송녀가 부인을 없애고자 하여, 일일은 간계를 내어 거짓 병을 일컫고 침석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는 체하거늘, 승상이 들어와 보고 묻기를,

"네 어디가 아프며 무슨 심려가 있어 그러한다. 사실을 감추지 말라." 하니 송녀가 교태를 부리며 말하기를,

"첩의 신세 슬프게 가여워서 병이 되었삽거니와, 예로부터 첩이란 것이 한집에 있으면 하나는 죽는다 하오니, 승상은 첩을 버리시거나 부인을 내치시거나 두 가지 중에 결단하여 첩을 살려 주소서.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첩은 필경 황천객이 되어 승상을 모실 길이 없나이다." 하며 간악한 눈물을 흘리니, 승상이 마음이 미혹하고 골절이 저린 듯하여 어루만져 말하길,

"네 마음이 진실로 그러할진대 어찌 일시라도 지체하리오. 너는 마음을 놓고 몸조리나 하거라." 하고 즉시 부인의 몸종을 불러 말하길,

"내 관상가에게 의논한즉, 부인과 한집에 있으면 송녀도 살지 못하고 부인도 해롭다 하니, 부인은 잠깐 피하였다가 형편을 보아 다시 들어옴이 가하다." 하거늘, 몸종 즉시 들어가 부인께 고하니 부인이 말하길,

"부부는 오륜의 으뜸이요, 하물며 내 아들 딸을 낳고 삼십여 년을 동락하고 다른 연고가 없거늘, 이제 어찌 무단히 내침을 당하리오." 하더니, 또 승상이 독촉을 계속한지라. 부인이 크게 원통하여 이에 승상께 나아가 가로되,

"고서에 이르되, '조강지처는 집 밖으로 내쫓지 않는다.' 하였고, 또한 첩이 칠거지악이 없거늘, 무고히 내치고자 하시니 이는 천고에 없는 일이요, 또 고언에 이르되, '처자가 죄악이 있어도 돌아갈 곳이 없거든 내치지 말라.' 하였사오니, 첩이 부모 형제 없거늘, 어디로 가라 하시고 이같이 내쫓으시니, 이 어찐 연고인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거늘, 승상이 못 들은 체하고 크게 화를 내며 말하길,

"내 이미 뜻을 정하였으니, 뉘 능히 내 영을 거역하리오. 바삐 자식을 데리고 나가라." 하는지라. 부인이 뜻밖의 일을 당하매, 어찌할 줄 몰라 자녀를 안고 울며 말하길,

"너희 부친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너희를 데리고 나가라 하고 구박함이 심하니, 우리 모자 장차 어디로 가리오."

- 작자 미상, '양풍전' -

	<최 씨>	<송녀>
①	兎死狗烹	解衣推食
②	比翼連理	表裏不同
③	含憤蓄怨	巧言令色
④	晩時之歎	隔靴搔癢

정답 3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인물의 처지와 말·행동을 파악한 뒤 그 특징을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한자성어와 연결하는 문제이다. 최 씨에게는 억울함과 원망을 품은 모습이, 송녀에게는 거짓말로 승상을 꾀는 교묘한 언행이 핵심이다.

핵심 정리

최 씨: 아무 잘못 없이 쫓겨나게 되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녀를 안고 운다. 따라서 분한 마음과 원망을 품는다는 뜻의 함분축원(含憤蓄怨)이 가장 잘 어울린다.
송녀: 자신이 부인인 체하면서 최 씨가 거짓 병을 앓는다고 꾸미고, 승상에게 최 씨를 내치도록 부추긴다. 따라서 교묘한 말과 꾸민 얼굴빛으로 남의 환심을 사려 한다는 뜻의 교언영색(巧言令色)이 가장 잘 어울린다.

선지별 해설

① X
최 씨가 승상의 자녀를 낳고 오랫동안 함께 살다가 버림받는 처지는 필요할 때 쓰고 필요가 없어지면 버린다는 토사구팽(兎死狗烹)과 어느 정도 통한다. 그러나 송녀는 자기 옷을 벗어 주고 음식을 권한다는 해의추식(解衣推食)과 정반대로 최 씨를 모함한다. 틀린 표현은 '송녀－해의추식'이며, 올바르게는 '송녀－교언영색'이다.

② X
비익연리(比翼連理)는 남녀 사이의 깊은 사랑을 뜻하지만, 최 씨는 남편에게 의심받고 내침을 당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리부동(表裏不同)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일반적 성격을 가리키므로 송녀의 모습을 일부 설명할 수 있으나, 거짓말과 교묘한 말로 승상을 움직이는 장면에는 교언영색이 더 직접적이다. 틀린 연결은 '최 씨－비익연리, 송녀－표리부동'이며, 올바르게는 '최 씨－함분축원, 송녀－교언영색'이다.

③ O
최 씨는 까닭 없이 버림받게 되어 억울함과 원망을 품으므로 함분축원(含憤蓄怨)에 해당한다. 송녀는 최 씨가 거짓 병을 앓는다고 꾸며 승상에게 말하고 최 씨를 내치도록 유도하므로 교언영색(巧言令色)에 해당한다. 두 인물의 핵심 상황을 모두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④ X
만시지탄(晩時之歎)은 때가 늦은 뒤에야 후회하거나 탄식한다는 뜻이지만, 최 씨는 뒤늦은 후회가 아니라 부당하게 내쳐지는 데 대한 분함과 원망을 드러낸다. 격화소양(隔靴搔癢)은 신을 신은 채 가려운 곳을 긁듯 일이 성에 차지 않거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뜻인데, 송녀의 모함과는 관련이 없다. 틀린 표현은 '최 씨－만시지탄, 송녀－격화소양'이며, 올바르게는 '최 씨－함분축원, 송녀－교언영색'이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①의 토사구팽과 ②의 표리부동도 인물의 일부 모습과 연결될 수 있어 그럴듯하다. 그러나 문제는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을 묻는다. 최 씨의 감정은 '간약한 눈물을 흘리니', '원통하여'에 직접 드러나고, 송녀의 특징은 거짓 병을 꾸며 승상을 부추기는 말에 직접 드러나므로 ③이 가장 정확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마다 감정·처지·행동을 한 단어로 요약한 뒤 한자성어의 중심 뜻과 맞춘다. 여러 표현이 부분적으로 가능하면 본문에 직접 제시된 감정이나 행동을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을 선택한다.

암기 포인트

최 씨의 분함과 원망은 함분축원, 송녀의 교묘한 거짓말은 교언영색이다.

NoteBase

문 6.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치는 화담의 소문을 듣고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치가 화담을 보니 얼굴은 연꽃 같고, 두 눈은 가을날의 물처럼 맑았다. 또한 그 정신이 우뚝 솟아 함부로 대하기 어려웠다. 화담 역시 우치의 그릇을 알아보고 그를 반겼다.

"전공(田公)께 내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 주시겠소?"

"선생께서 부탁하신다면 당연히 들어야지요."

"고맙소. 그런데 전공에게 조금 무리하지 않을까 하오."

"말씀이나 하시지요."

"좋소. 남해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운수 선생이라는 도인이 살고 있소. 그 선생에게 그동안 안부를 전하지 못해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대가 들어 줄 수 있겠소?"

"하하, 소생이 비록 재주가 없지만 그 정도는 순식간에 다녀오겠습니다."

"쉽게 다녀오지 못할까 두렵소."

화담이 믿지 못하는 듯한 눈치를 보이자 우치는,

"제가 만약 다녀오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이곳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맹세했다.

화담은 웃으며 서찰을 내주었다. 우치는 보란 듯이 서찰을 받자마자 해동청 보라매가 되어 공중으로 치올랐다. 바다를 얼마쯤 갔을까. 공중에 난데없이 그물이 앞을 막았다. 우치가 날아오르려 하자 그물이 따라 높이 올랐다. 우치가 돌아가려 하는데 그물 역시 우치를 따라왔다. 우치는 다시 도술을 써 모기가 되어 그물을 뚫고자 했다. 그런데 그물이 갑자기 거미줄로 변하며 다시 앞을 가로막는 것이 아닌가. 우치는 결국 십여 일을 애쓰다가 가지 못하고 돌아오고 말았다.

화담은 우치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크게 웃었다.

"그대는 다시 이곳에서 나가지 못하리라."

우치는 속았다는 생각에 황급히 도망쳤다. 우선 해동청 보라매가 되어 달아나니, 화담은 커다란 수리가 되어 쫓았다. 우치가 다시 갈범이 되어 도망치니 화담은 커다란 청사자가 되어 마침내 갈범을 물었다.

"네가 몇 가지 재주를 가지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은 기특하지만 좋지 않은 재주는 결코 옳지 않은 일에 쓰이게 마련이다. 재주 또한 반드시 윗길이 있으니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면 반드시 화를 입으리라. 내가 태백산에 들어가 정대(正大)한 도리를 구하려 하니 너는 나를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치는 화담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르기로 했다. 이후 두 사람은 태백산으로 들어가 신선의 도를 닦았고, 우치는 보배로운 글을 많이 지어 석실(石室)에 감추었다.

- 작자 미상, '전우치전' -

① 상세한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② 인물들의 대사보다는 내면 서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③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시킴으로써 사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④ 전기적(傳奇的)인 요소가 사건 전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답 4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작품의 서술 방식과 사건 전개상의 특징을 구체적인 본문 근거로 판단하는 문제이다. 특히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변신과 도술이 사건을 어떻게 이끄는지 파악해야 한다.

핵심 개념

전기적(傳奇的) 요소는 변신, 도술처럼 현실의 인과 법칙을 넘어서는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사건이나 소재이다. 이 작품에서는 우치와 화담이 여러 동물과 사물로 변신하며 쫓고 쫓기는 과정이 사건 전개의 중심을 이룬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상세한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이다. 남해의 큰 산과 태백산 등의 공간은 간단히 제시될 뿐 상세하게 묘사되지 않으며, 우치의 심리는 대화와 행동을 통해 직접 드러난다. 올바르게는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우치의 자신감, 두려움, 당황스러움 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해야 한다.

② X
틀린 표현은 '인물들의 대사보다는 내면 서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이다. 본문에는 화담의 부탁, 우치의 응답과 맹세 등 대사가 많이 나오고, 인물의 변신과 추격 행동을 서술하여 사건을 전개한다. 인물의 내면을 길게 파고드는 서술은 중심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인물들의 대사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해야 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시킴으로써 사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이다. 화담은 우치에게 부탁한 뒤 그의 재주를 시험하고 가르침을 주며, 두 인물이 서로 대립하는 갈등 관계에 놓인 것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화담의 도술 시험과 우치의 변신·추격을 연속적으로 제시하여 사건에 흥미와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라고 해야 한다.

④ O
우치가 해동청 보라매, 모기, 갈벌로 변하고 화담이 수리와 청사자로 변하는 등 전기적인 요소가 연속해서 나타난다. 이러한 도술과 변신이 추격 사건을 만들고, 화담이 우치의 재주를 시험하여 태백산으로 데려가는 계기가 되므로 사건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답 포인트

도술 장면이 긴장감을 만든다는 이유만으로 ③의 '인물 간 갈등'을 선택하기 쉽다. 그러나 긴장감의 원인은 대립하는 인물들의 갈등이 아니라 화담이 도술로 우치를 시험하며 벌이는 변신과 추격이다. 또한 ①의 공간 제시를 '상세한 배경 묘사'로 과장하거나, 대사가 많은 작품을 ②처럼 '내면 서술 중심'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작품 설명 선지는 '무엇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는가'를 본문과 대응시켜 판단한다. 배경이 실제로 상세한지, 사건이 대사·행동과 내면 서술 중 무엇으로 전개되는지, 인물들이 서로 대립하는지, 비현실적 요소가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지를 차례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변신·도술은 전기적 요소이며, 이 작품에서는 장식이 아니라 추격과 시험을 이끄는 사건 전개의 핵심 장치이다.

NoteBase

문 7. 다음 작품을 절대주의적 관점으로 이해하지 않은 것은?

> 먼 후일 당신이 찾으시면
> 그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
>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
>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
>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 먼 후일 그때에 "잊었노라."
>
> – 김소월, '먼 후일' –

① 가정적 상황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② 대상인 '당신'에 화자가 꿈꾸던 조국광복을 투영하고 있다.
③ 반어적 진술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④ 반복과 변조의 기법을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절대주의적 관점이 작품 자체의 시어, 표현법, 구조를 근거로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임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절대주의적 관점: 작품을 작가의 생애나 시대 상황 같은 외부 정보와 분리하고, 작품 내부의 언어·구조·표현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관점이다.
작품 내부 근거는 '당신', '잊었노라' 같은 시어와 가정, 반복, 변주, 역설 등의 표현이다. 반면 '조국 광복'은 작품 밖의 역사적 상황을 끌어온 해석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먼 훗일 당신이 찾으시면'이라는 가정적 상황에서 화자는 '당신'을 잊었다고 말하지만, 그 말의 반복을 통해 오히려 잊지 못하는 정서가 드러난다. 작품 내부의 상황과 시어를 근거로 한 절대주의적 이해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화자가 꿈꾸던 조국 광복을 투영'했다는 부분이다. '조국 광복'은 작품에 직접 제시되지 않은 시대적·역사적 배경이므로 작품 내부만 살피는 절대주의적 관점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대상인 당신에게 느끼는 그리움과 잊지 못하는 마음을 투영하고 있다'라고 이해한다.
③ O — '잊었노라'라고 거듭 말하면서 실제로는 잊지 못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반어적 진술이 화자의 그리움과 애상적 정서를 강조한다. 작품의 표현법과 정서를 연결한 절대주의적 이해이다.
④ O — '잊었노라'의 반복 속에서 '무척 그리다가', '믿기지 않아서',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처럼 이유와 상황을 변주하여 잊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시상을 전개한다. 작품 내부의 구조와 표현을 근거로 한 절대주의적 이해이다.

오답 포인트

김소월의 작품이라는 사실이나 작품이 쓰인 시대를 떠올려 ②의 '조국 광복'을 그럴듯하게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절대주의적 관점에서는 작품에 직접 나타나지 않은 역사적 배경을 해석 근거로 삼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근거가 작품 안에 직접 있는지 확인한다. 시어·운율·반복·구조·화자의 상황과 정서만으로 설명되면 절대주의적 관점이고, 작가의 생애·시대 상황·독자의 반응을 끌어오면 다른 관점이다.

암기 포인트

절대주의적 관점은 작품 안, 역사·작가·독자는 작품 밖이다.

NoteBase

문 8. 다음 작품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않은 것은?

> 무상(無狀)한 이 몸애 무슨 지취(志趣) 이스리마ᄂᆞᆫ
> 두세 이렁 밧ᄂᆞᆫ을 다 무겨 더뎌 두고
> 이시면 죽(粥)이오 업시면 굴물망졍
> 남의 집 남의 거슨 전혀 부러 말렷노라
> ᄂᆡ 빈천(貧賤) 슬히 너겨 손을 헤다 물너가며
> 남의 부귀(富貴) 불리 너겨 손을 치다 나아오랴
> 인간(人間) 어ᄂᆡ 일이 명(命) 밧긔 삼겨시리
>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ᄒᆞ건마ᄂᆞᆫ
> ᄂᆡ 생애 이러호ᄃᆡ 설온 ᄯᅳᆺ은 업노왜라
> 단사표음(簞食瓢飮)을 이도 족(足)히 너기로라
> 평생 ᄒᆞᆫ ᄯᅳᆺ이 온포(溫飽)애ᄂᆞᆫ 업노왜라
> 태평천하(太平天下)애 충효(忠孝)를 일을 삼아
> 화형제(和兄弟) 신붕우(信朋友) 외다 ᄒᆞ리 ᄂᆡ 이시리
> 그 밧긔 남은 일이야 삼긴ᄃᆡ로 살렷노라
>
>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

① 안분지족(安分知足)적 삶의 자세가 드러나 있다.
② 양반의 지배적 이념을 추구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③ 서로 대비되는 시어를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④ 주객이 전도된 표현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누항사」에 나타난 화자의 삶의 태도와 표현상의 특징을 작품의 구체적인 시어를 근거로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안분지족은 자신의 분수를 지키며 현재의 처지에 만족하는 태도이다. 화자는 가난 속에서도 부귀를 부러워하지 않고, 충효·형제간의 화목·벗 사이의 신의를 실천하는 삶을 지향한다. 또한 '이시면/업시면', '빈천/부귀'처럼 서로 반대되는 시어와 설의적 물음을 활용해 이러한 태도를 강조한다. 주객 전도는 본래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뒤바꾸어 표현하는 방식인데, 제시된 부분에서는 그러한 표현이 핵심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남의 집 남의 거슨 전혀 부러 말렷노라', '설온 뜻은 업노왜라'에서 가난한 처지를 원망하거나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안분지족적 태도가 드러난다.
② O — '태평천하에 충효를 일을 삼아 / 화형제 신붕우 외다 하리 뉘 이시리'에는 충효, 형제간의 화목, 벗 사이의 신의와 같은 유교적 윤리를 실천하려는 양반의 지배적 이념이 나타난다.
③ O — '이시면/업시면', '빈천/부귀'와 같이 서로 대비되는 시어를 통해 물질적 빈곤 속에서도 부귀를 탐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지키려는 주제를 부각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주객이 전도된 표현'이다. 이 부분에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뒤바꾼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대조적 시어, 설의적 표현, '설온 뜻은 업노왜라'와 같은 화자의 직접적인 진술을 통해 안빈낙도와 안분지족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의 '주객이 전도된 표현'을 작품에 실제로 쓰인 표현법처럼 받아들이기 쉽다. 표현법의 명칭은 반드시 구절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 작품에서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은 '빈천/부귀'의 대조와 '나아오랴'의 설의적 표현이지,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바꾸는 주객 전도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작품 이해 선지는 태도와 표현법을 나누어 판단한다. 태도는 '부러 말렷노라', '설온 뜻은 업노왜라' 같은 화자의 진술에서 확인하고, 표현법은 실제로 짝을 이루는 대조어나 의문 형식이 있는지 구절과 직접 대응해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누항사」는 가난한 현실 속 안분지족·안빈낙도와 충효의 실천을 노래하며, 대조와 설의를 활용한다.

NoteBase

문 9. 밑줄 친 부분의 시제가 다른 것은?

① 친구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다.
②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씨가 예쁘다.
③ 잘 익은 사과를 보니 기분이 좋다.
④ 나는 그에게 받은 것이 전혀 없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동사와 형용사의 시제 표현, 특히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나타내는 시제의 차이를 묻는다.

핵심 개념

동사의 관형사형에서 '-(으)ㄴ'은 과거를 나타내지만, 형용사의 관형사형에서 '-(으)ㄴ'은 현재의 상태를 나타낸다. 또한 동사에 선어말 어미 '-았-/-었-'이 쓰이면 과거 시제가 된다. 따라서 '익은·받은'은 동사의 과거이고, '아름다운'은 형용사의 현재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빌렸다'는 동사 '빌리다'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한 말이므로 과거 시제이다. '시제가 다른 것'이라는 판단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다른 과거 시제 표현들과 같은 시제라고 판단한다.
② O — '아름다운'은 형용사 '아름답다'의 관형사형으로, 현재의 상태인 '지금 아름다운 마음씨'를 나타낸다. 나머지 선지의 밑줄 친 말은 모두 과거 시제이므로 이 선지만 시제가 다르다.
③ X — '익은'은 동사 '익다'에 과거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하여 이미 익은 사과를 나타내므로 과거 시제이다. '시제가 다른 것'이라는 판단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과거 시제라고 판단한다.
④ X — '받은'은 동사 '받다'에 과거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하여 이전에 받은 사실을 나타내므로 과거 시제이다. '시제가 다른 것'이라는 판단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과거 시제라고 판단한다.

오답 포인트

②의 '아름다운'과 ③·④의 '익은·받은'은 모두 겉으로 '-(으)ㄴ' 꼴이어서 같은 시제로 보기 쉽다. 그러나 형용사의 '-(으)ㄴ'은 현재 상태를, 동사의 '-(으)ㄴ'은 과거를 나타낸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용언의 기본형과 품사를 먼저 확인한다. 동사의 '-(으)ㄴ'은 과거, 형용사의 '-(으)ㄴ'은 현재로 판단하고, '-았-/-었-'이 있으면 과거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동사 '-(으)ㄴ'은 과거, 형용사 '-(으)ㄴ'은 현재이다.

NoteBase

문 10. (가)~(라)를 문맥에 맞게 배열한 것은?

(가) 물질적 안락의 문제만 따진다면, 아무리 사업가가 파산했다고 하더라도 파산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풍족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사람들이 흔히 쓰는 생존을 위한 경쟁이란 말은 실제로는 성공을 위한 경쟁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경쟁을 하면서 내일 아침을 먹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뛰어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한다.

(나) 물론 생존 경쟁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불행한 처지에 빠진다면 우리들 중 누구에게나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콘라드 소설의 주인공인 포크가 그런 경우였다. 정신을 차려보니 배가 난파당했는데, 포크와 또 다른 선원, 두 사람에게만 총이 있었다. 그 배에는 먹을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두 사람이 사이좋게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진정한 의미의 생존경쟁이 시작되었다. 결국 포크가 이겼고, 그 후 평생을 채식주의자로 살았다.

(다) 하지만 사업가가 사용하는 '생존경쟁'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아니다. 그가 사용하는 생존경쟁이란 말은 부정확한 표현이다. 사업가는 사소한 일에도 위엄을 갖추기 위해서 이 표현을 즐겨 쓴다. 하지만 사업가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 같은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파산한 친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라) 미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혹은 영국에서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즐겁게 생활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라. 그들은 '생존경쟁'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들은 진심에서 우러나서 이렇게 말할 것이고, 또 그렇다고 믿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옳은 말이다. 그러나 중요한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말이다.

- 버트런드 러셀, '행복의 정복' -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다) - (라) - (나)
③ (라) - (나) - (다) - (가)
④ (라) - (다) - (나) - (가)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문단의 중심 화제와 접속 표현, 지시 표현을 바탕으로 글의 논리적 순서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라) → (나) → (다) → (가)
1. (라): 사람들이 즐거운 생활을 방해하는 것으로 '생존경쟁'을 꼽는다는 통념을 제시하고, 그것이 한 측면에서는 옳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잘못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2. (나): '물론'으로 앞의 판단 중 옳은 측면을 받아, 불행한 처지에서는 실제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수 있음을 포크의 사례로 보여 준다.
3. (다): '하지만'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사업가가 말하는 '생존경쟁'은 앞에서 든 실제 생존의 의미와 다르다고 밝힌다.
4. (가): 사업가들의 경쟁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공하거나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한 경쟁이라는 뜻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왜 이 순서인가: (나)의 '물론'이 (라)의 양면적 판단 가운데 일부를 인정하고, (다)의 '하지만'과 '이런 의미'가 (나)의 실제 생존 경쟁을 받아 반전한 뒤, (가)가 그 차이를 풀어 설명하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가)는 사업가의 경쟁이 실제 생존 경쟁과 다르다는 설명이 제시된 뒤에 와야 하므로 첫 문단이 될 수 없다. 또한 문제를 처음 제기하는 (라)가 맨 끝에 놓인 것도 부자연스럽다. 틀린 배열 '(가)－(나)－(다)－(라)'은 올바르게는 '(라)－(나)－(다)－(가)'이다.
② X — (다)의 '이런 의미'는 (나)에서 제시한 실제 생존의 의미를 가리켜야 하므로 (나)가 (다)보다 앞서야 한다. 또한 전체 화제를 여는 (라)가 (가)와 (나) 사이에 놓일 수 없다. 틀린 배열 '(가)－(다)－(라)－(나)'은 올바르게는 '(라)－(나)－(다)－(가)'이다.
③ O — (라)에서 통념과 문제를 제기하고, (나)에서 실제 생존 경쟁을 인정한 뒤, (다)에서 사업가의 용법은 그 의미와 다르다고 전환하며, (가)에서 사업가들이 말하는 경쟁의 실제 의미를 설명한다.
④ X — (나)의 '물론'으로 실제 생존 경쟁을 먼저 인정한 다음 (다)의 '하지만'으로 그 의미와 사업가의 용법을 대조해야 하므로 (다)와 (나)의 순서가 뒤바뀌었다. 틀린 배열 '(라)－(다)－(나)－(가)'은 올바르게는 '(라)－(나)－(다)－(가)'이다.

오답 포인트

'생존경쟁'이라는 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이유만으로 문단을 붙이면 (나)와 (다)의 순서를 놓치기 쉽다. (나)의 '물론'은 앞의 견해를 일부 인정하고, (다)의 '하지만'은 그 인정 뒤에 반대 방향으로 전환한다. 또한 (다)의 '이런 의미'는 바로 앞 (나)의 실제 생존 경쟁을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단 배열에서는 먼저 전체 화제를 여는 문단을 찾고, '물론 → 하지만'과 같은 접속 관계를 확인하며, '이런 의미' 같은 지시 표현의 구체적인 선행 내용을 찾는다. 마지막에는 앞 문단의 주장을 구체화하거나 설명하는 문단을 배치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통념 제시 (라) → 실제 생존 인정 (나) → 사업가의 용법 반박 (다) → 성공 경쟁의 의미 설명 (가)이다.

NoteBase

문 11. 모음을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① 위, 수, 그　　② 죄, 너, 도
③ 개, 라, 네　　④ 이, 베, 가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모음을 발음할 때 혀의 높이에 따라 고모음·중모음·저모음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모음은 혀의 위치를 가장 높여 발음하는 모음으로 ㅣ, ㅟ, ㅡ, ㅜ가 해당한다. 중모음은 혀의 높이가 그 중간인 ㅔ, ㅚ, ㅓ, ㅗ이고, 저모음은 혀의 위치를 가장 낮추어 발음하는 ㅐ, ㅏ이다. 결정적인 구분 기준은 입을 벌리는 정도가 아니라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놓이는 높이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위'의 ㅟ, '주'의 ㅜ, '그'의 ㅡ는 모두 혀의 위치가 가장 높은 고모음이다.
② X — 틀린 부분은 '가장 높은 모음으로만 묶였다'는 판단이다. '죄'의 ㅚ, '너'의 ㅓ, '도'의 ㅗ는 모두 고모음이 아니라 중모음이다. 올바르게는 '혀의 높이가 중간인 모음으로만 묶인 것'이다.
③ X — 틀린 부분은 세 모음의 혀 높이가 모두 가장 높다는 판단이다. '개'의 ㅐ와 '라'의 ㅏ는 저모음이고, '네'의 ㅔ는 중모음이다. 올바르게는 '저모음과 중모음이 섞인 것'이다.
④ X — 틀린 부분은 세 모음이 모두 고모음이라는 판단이다. '이'의 ㅣ만 고모음이고, '베'의 ㅔ는 중모음, '가'의 ㅏ는 저모음이다. 올바르게는 '고모음·중모음·저모음이 하나씩 섞인 것'이다.

오답 포인트

글자의 모양이나 입술의 둥근 정도에 끌리면 혀의 높이를 놓치기 쉽다. 특히 ②는 세 모음이 모두 같은 높이인 중모음이라서 '같은 부류'라는 점만 보고 고모음으로 오인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음절에서 모음만 분리한 뒤 ㅣ·ㅟ·ㅡ·ㅜ인지 확인한다. 이 네 모음으로만 이루어진 선지는 고모음 묶음이고, ㅔ·ㅚ·ㅓ·ㅗ가 들어가면 중모음, ㅐ·ㅏ가 들어가면 저모음이 포함된 것이다.

암기 포인트

혀가 높은 고모음은 '이·위·으·우', 즉 ㅣ·ㅟ·ㅡ·ㅜ이다.

NoteBase

문 12. 다음 글을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을 때 (가)~(라)에 들어갈 순서로 적절한 것은?

산업혁명은 '생산 제도와 생산기술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소규모 수공업 중심의 작업장을 대신해, 다수의 노동자가 일하는 기계를 갖춘 공장이 경제의 중심으로 확립되고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760년 무렵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1840년에 이르러 서유럽 국가들에 파급되어 자본주의 경제를 성립시켰다.

이미 언급했듯이 영국은 사상이나 사회구조적으로 또한 과학적으로 가장 일찍 산업혁명을 일으킬 준비가 갖추어진 나라였다. 방적, 기계, 화학 산업의 발명과 기술 개량의 촉진으로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철재를 사용해야 했는데, 철광석을 용해해 철재를 생산하는 제철업에는 에너지원이 필요했다. 그 때문에 1700년 약 300만 톤이었던 석탄의 채굴량은 1800년에는 1,000만 톤, 1850년에는 6,000만 톤으로 급증했다. 그 결과 채굴 현장이 지하수위보다 점점 깊어지면서 지하수를 퍼 올리지 않으면 수몰될 위험에 놓였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물푸기 전용 증기기관이었다.

보일의 조수였던 도니 파팽은 1690년 피스톤 기구를 고안하면서 석탄에 의한 수증기를 그 동력으로 생각했다. 토마스 세이버리가 이 구상을 실현시켰으며, 토마스 뉴커먼과 존 스미튼이 이를 개량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증기기관의 에너지 효율은 좋지 않아 불과 2퍼센트 정도였다.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던 사람이 제임스 와트였다. 그는 기업가 매튜 볼턴과 지적 활동에 관심이 강했던 사교 단체 '루나 협회'의 지원을 받아 증기기관 개량에 성공했다.

그 뒤 실린더 가공 기술이 진보하여 증기기관의 동력 에너지 출력을 제어하는 장치가 개발되면서 증기기관은 더욱 경제성 높은 장치가 되었고 1830년 이후에는 다양한 분야에 보급되기 시작했다.

< 보 기 >

산업혁명의 시작 ⇨ (가) ⇨ (나) ⇨ (다) ⇨ 지하수를 퍼올릴 필요 증가 ⇨ (라) ⇨ 각종 산업에 응용·발전

㉠ 철재 수요 증가
㉡ 증기기관 발명과 개량
㉢ 석탄의 채굴량 증대
㉣ 공업화를 위한 건설 촉진

	(가)	(나)	(다)	(라)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정답 4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산업 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공장 건설, 철재 수요, 석탄 채굴, 증기기관의 발명·개량이 이루어진 인과적 순서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가) ㄹ 공업화를 위한 건설 촉진 — 산업 혁명으로 기계를 갖춘 공장이 경제의 중심이 되면서 공장 건설이 촉진된다.
(나) ㄱ 철재 수요 증가 — 공장을 건설하고 철제 기계를 만들기 위해 철재가 필요해진다.
(다) ㄷ 석탄의 채굴량 증대 — 철광석을 용해해 철재를 생산하는 제철업의 에너지원으로 석탄이 필요해져 채굴량이 늘어난다.
(라) ㄴ 증기기관 발명과 개량 — 탄광이 깊어져 지하수를 퍼 올릴 필요가 커지자 배수용 증기기관이 개발되고 이후 개량된다.
왜 이 순서인가: 공장 건설이 철재 수요를 낳고, 철재 생산이 석탄 채굴을 늘리며, 깊어진 탄광의 배수 문제가 증기기관의 발명과 개량을 촉진했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가)에 ㄱ, (나)에 ㄴ을 둔 것이 틀리다. 철재 수요는 공업화를 위한 건설 촉진 뒤에 증가하며, 증기기관은 지하수를 퍼 올릴 필요가 증가한 뒤에 놓여야 한다. 올바르게는 (가) ㄹ, (나) ㄱ, (다) ㄷ, (라) ㄴ이다.
② X — (가)에 ㄴ, (라)에 ㄹ을 둔 것이 틀리다. 공업화를 위한 건설 촉진이 먼저이고, 증기기관의 발명과 개량은 탄광의 배수 필요가 커진 뒤에 이루어진다. 올바르게는 (가) ㄹ, (나) ㄱ, (다) ㄷ, (라) ㄴ이다.
③ X — 석탄 채굴량 증가를 공장 건설과 철재 수요 증가보다 앞에 둔 것이 틀리다. 공장 건설로 철재 수요가 늘고 제철업의 에너지원인 석탄 채굴이 증가한다. 올바르게는 (가) ㄹ, (나) ㄱ, (다) ㄷ, (라) ㄴ이다.
④ O — 공업화를 위한 건설 촉진에서 철재 수요 증가, 석탄 채굴량 증대, 증기기관의 발명과 개량으로 이어지는 본문의 인과 관계와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증기기관이 산업 혁명의 대표적 발명이라는 배경지식만으로 이를 앞자리에 두기 쉽다. 그러나 도식에는 '지하수를 퍼 올릴 필요 증가'가 (라) 바로 앞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배수 문제를 해결한 ㄴ이 반드시 (라)에 들어간다. 또한 철재 수요와 석탄 채굴의 순서는 공장 건설에 필요한 철재를 생산하려면 에너지원인 석탄이 필요했다는 관계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순서형 문항은 각 사건을 원인과 결과로 연결한다. 이 문항에서는 건설이 철재 수요의 원인이고, 철재 생산이 석탄 채굴 증가의 원인이며, 깊어진 탄광의 배수 문제가 증기기관 개발의 원인이다. 특히 도식에 이미 제시된 단계의 바로 다음 결과부터 확정하면 선택지를 빠르게 좁힐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건설 → 철재 → 석탄 → 증기기관’, 즉 ㄹ → ㄱ → ㄷ → ㄴ의 흐름으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13. 다음 글에서 필자가 사용한 글쓰기 전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우리는 사유 재산과 이익 그리고 힘을 존재의 받침대로 삼고 그것에 의존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따라서 판단이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다. 취득하고 소유하고 이익을 올리는 것은 산업사회에 속한 개인의 신성하고도 빼앗길 수 없는 권리다. 어떻게 해서 재산을 얻었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재산을 소유한다고 소유자에게 어떤 의무가 더해지지도 않는다. 그 원리는 이렇다. "내 재산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으며 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나만의 문제다. 법을 범하지 않는 한 내 권리는 무제한이며 절대적이다."
>
> 이런 종류의 재산을 사유(private) 재산(라틴어 privare '앗는다'에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 혹은 사람들만이 그 주인으로서 그것을 사용하거나 즐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서 앗는 완전한 힘을 가진다는 것에 있다. 이러한 사적 소유권은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범주 안에 든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선사시대를 포함해서) 전체, 특히 경제를 인생의 주요 관심사로 하지 않는 유럽 이외의 여러 문화를 생각하면, 그것은 사실 공통법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외이다. 사유재산 외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자기 축적 재산, 이것은 전적으로 자기가 일한 결과다. 한정 재산, 이것은 동포를 원조할 의무에 한정되어 있다. 기능적 혹은 개인적 재산, 이것은 일하는 도구 혹은 즐기는 대상으로 성립된다. 공유 재산, 이것은 이스라엘의 키부츠처럼 한 집단이 공동체 정신에 따라 공유한다.
>
> 사회의 기능을 규정하는 규범은 그 구성원의 성격(사회적 성격)까지도 형성한다. 산업사회에서 그 규범은 재산을 취득하고 지키고 불리는, 즉 이익을 올리기 위한 염원으로, 재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 뛰어난 존재로서 칭찬을 받고 부러움을 산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자본이나 자본재라는 참다운 의미에서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힌다. 재산을 취득하고 지키는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가, 아니, 처리할 수 있는가? 또 이렇다 할 재산도 없이 어떻게 재산의 소유자 같은 기분을 맛볼 수 있는가?
>
> 물론 누가 보아도 분명한 대답은 이러하다. 가령 재산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무엇인가는 소유하고 있으니, 그 보잘것없는 소유물을 자본가가 그렇게 하듯이 소중히 다루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도 자산가들처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보존하고 조금이나마 늘리려는 소망(예를 들면 여기서 1센트, 저기서 2센트 절약해서)에 사로잡혀 있다.
>
> - 에리히 프롬, '소유냐 삶이냐' -

① 주요 개념을 어원을 밝혀 설명한다.
② 일반적인 통념과 상반되는 견해를 제시하며 세태를 비판한다.
③ 의문형 진술을 통해 문제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한다.
④ 설명 대상과 성격이 다른 유형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정답 2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문에 실제로 사용된 글쓰기 전략을 찾아,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전략을 가려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글쓰기 전략은 필자가 내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전개하기 위해 선택한 표현·구성 방식이다. 어원 설명은 말의 기원을 밝혀 개념을 풀이하는 방식이고, 의문형 진술은 질문을 던져 독자의 관심을 환기하는 방식이며, 분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을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는 방식이다. 세태 비판은 당대 사회의 풍조나 현실의 문제점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사유(private) 재산'을 라틴어 privare의 '앗는다'라는 뜻과 연결하므로, 주요 개념의 어원을 밝혀 설명하는 전략이 사용되었다.
② X — 틀린 부분은 '세태를 비판한다'이다. 글은 사적 소유권이 자연스럽고 보편적이라는 통념과 다른 관점을 제시하지만, 당시의 세태를 비판하는 데 초점을 두지는 않는다. 올바르게는 '일반적 통념과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사유재산 이외의 재산 유형과 재산이 없는 사람들의 소유 욕구를 설명한다'이다.
③ O — '재산을 취득하고 지키는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가', '재산도 없이 어떻게 재산의 소유자 같은 기분을 맛볼 수 있는가'와 같은 의문형 진술로 문제를 제기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④ O — 사유재산과 성격이 다른 재산을 자기 축적 재산, 한정 재산, 기능적 혹은 개인적 재산, 공유 재산으로 나누어 제시하므로, 설명 대상을 여러 유형으로 구분하는 전략이 사용되었다.

오답 포인트

②의 앞부분인 '일반적인 통념과 상반되는 견해'는 지문에서 확인되므로 선지 전체를 맞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뒤의 '세태를 비판한다'는 글의 전개 목적과 맞지 않는다. 복합 선지는 각 절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글쓰기 전략을 묻는 문제에서는 선지의 핵심 동사인 '설명한다', '비판한다', '유발한다', '구분한다'에 대응하는 지문 근거를 찾는다. 선지가 두 가지 전략을 함께 말하면 두 전략이 모두 실제로 쓰였는지 각각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어원은 말의 기원, 의문형은 질문, 분류는 유형 나누기, 세태 비판은 사회 풍조에 대한 부정적 평가이다.

NoteBase

문 14. 다음 글의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언어 기호는 과연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는 수단일까? 이런 의문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프랑스의 구조언어학자인 소쉬르다. 그는 기호를 의미하는 것(기표, signifiant)과 의미되는 것(기의, sifinfiè)으로 구분하고, 양자의 관계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필연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언어 기호가 지시 대상을 가리킨다고 보는 전통적인 관점을 뒤집은 것이다. 나무라는 말이 나무를 가리키고 바위라는 말이 바위를 가리키는 것은 당연한데, 대체 소쉬르는 무슨 말을 하는 걸까? 그는 스피노자의 말을 빌려 "개는 짖어도 개라는 낱말은 짖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의 말은 마당에서 뛰노는 실제의 개(기의)를 개라는 이름(기표)으로 불러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개를 소나 닭으로 바꿔 불러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
> 그렇다면 개를 개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그런 이유는 없다. 그것은 순전한 우연이다. 개를 개라고 부르는 것은 개라는 낱말이 지시하는 대상, 즉 실제 개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언어 체계에서 정해진 약속일 따름이다. 여기서 소쉬르는 '차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끄집어낸다. 개는 소나 닭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것이다. 차이란 실체가 아니라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실체적 사고가 아니라 관계적 사고이다. 기호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다른 기호들과의 관계(차이)다. 그런데 관계는 실체에 가려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우리는 실체적 사고에 익숙하기 때문에 실체의 배후에 숨은 관계를 포착하지 못한다. 기호를 실체로 간주하면 기호와 지시 대상을 무의식적으로 일체화하기 때문에 그 기호의 본래 의미를 알려주는 맥락을 놓치게 되며, 이른바 '행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① 기호를 해석할 때에는 기호 자체보다는 기호를 둘러싼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
② 어떤 단어가 기의는 같지만 기표가 다른 경우는 언어학적으로 있을 수 없다.
③ 기의와 기표가 자의적인 관계에 있다는 전통적 주장은 수정되어야 한다.
④ 행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적으로 실체적 사고가 작동되어야 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쉬르의 기표·기의 구분과 기호의 자의성, 그리고 필자가 강조하는 관계적 사고를 바탕으로 각 선지가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기표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나 이름이고, 기의는 그 기표를 통해 떠올리는 의미이다. 기표와 기의의 결합에는 필연적 이유가 없으므로 자의적이며, 한 기호의 의미는 실체 자체가 아니라 언어 체계 안의 다른 기호들과 맺는 차이와 관계 속에서 정해진다. 따라서 글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기호와 지시 대상을 곧바로 동일시하지 않고 기호들을 둘러싼 관계와 맥락을 살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필자는 기호의 의미가 다른 기호들과의 관계인 '차이'에서 결정되며, 기호를 실체로 간주하면 본래 의미를 알려 주는 맥락을 놓친다고 말한다. 따라서 기호 자체만 보기보다 기호를 둘러싼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는 진술이 적절하다.

② X — 틀린 표현은 '언어학적으로 있을 수 없다'이다. 글은 실제 개라는 기의가 '개'뿐 아니라 '소'나 '닭' 같은 다른 기표와 결합해도 본질적으로 상관없다고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동일한 기의가 언어 체계의 약속에 따라 서로 다른 기표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자의적인 관계에 있다는 전통적 주장은 수정되어야 한다'이다. 글은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고 언어 체계의 약속에 따른다는 자의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기표와 기의의 자의적 관계를 인정하되, 기호의 의미가 다른 기호들과의 차이와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는 점까지 파악해야 한다고 해야 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무의식적으로 실체적 사고가 작동되어야 한다'이다. 글은 실체적 사고에 익숙하면 기호와 지시 대상을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하여 관계와 맥락을 놓친다고 비판한다. 올바르게는 행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실체적 사고에서 벗어나 기호들 사이의 숨은 관계를 포착하는 관계적 사고가 작동해야 한다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자의성'과 '차이'를 대립시키는 함정이다. 필자는 자의성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호와 실체의 대응만 보는 데서 나아가 기호들 사이의 관계와 차이가 의미를 만든다는 점을 강조한다. ④는 글에서 비판한 '실체적 사고'를 의미 이해의 조건으로 뒤집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글의 결론과 인과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의미는 다른 기호들과의 차이·관계·맥락에서 결정된다'는 결론에 부합하면 적절하고, 기호와 실체를 동일시하거나 실체적 사고를 의미 이해의 조건으로 제시하면 부적절하다.

암기 포인트

기표와 기의의 결합은 자의적이고, 기호의 의미는 실체가 아니라 차이·관계·맥락에서 생긴다.

NoteBase

문 15. <보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문장은?

< 보 기 >

○ 관형사가 들어 있을 것
○ 필수적 부사어가 들어 있을 것
○ 객체를 높이는 서술어가 들어 있을 것

① 동생은 어제 산 새 옷을 할아버지께 드렸다.
② 그는 아버지와 함께 했던 옛 추억을 떠올렸다.
③ 어머니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시장에 다녀오셨다.
④ 할머니께서는 손자가 무슨 말을 해도 좋다고 하셨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관형사, 필수적 부사어, 객체 높임 서술어를 구별하고 세 요소가 한 문장에 모두 쓰였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관형사는 체언 앞에서 그 체언을 꾸미는 품사로, '새', '옛', '무슨' 등이 해당한다.
필수적 부사어는 서술어가 문장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요구하는 부사어이다. '드리다'는 '누구에게'에 해당하는 부사어를 필요로 한다.
객체 높임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높이는 표현이다. '드리다', '모시다', '여쭈다'와 같은 특수한 서술어로 실현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새’는 뒤의 ‘옷’을 꾸미는 관형사이다. ‘드리다’는 받는 대상인 ‘할아버지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므로 ‘할아버지께’는 필수적 부사어이다. 또한 ‘드렸다’는 할아버지를 높이는 객체 높임 서술어이므로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② X — ‘옛’은 관형사이고 ‘아버지와’는 ‘함께하다’가 요구하는 상대를 나타내지만, ‘떠올렸다’는 객체를 높이는 서술어가 아니다. 틀린 부분은 ‘떠올렸다’이며, 세 조건을 모두 갖춘 표현으로 고치면 ‘그는 아버지께 옛 추억을 여쭈었다.’와 같이 쓸 수 있다.

③ X — ‘모시고’는 할머니를 높이는 객체 높임 서술어이고 ‘시장에’는 이동 장소를 나타내지만, 문장에 관형사가 없다. 틀린 부분은 관형사가 빠진 것이며, ‘어머니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그 시장에 다녀오셨다.’처럼 관형사 ‘그’를 넣으면 세 조건을 모두 갖출 수 있다.

④ X — ‘무슨’은 ‘말’을 꾸미는 관형사이지만, ‘하셨다’는 주어인 할머니를 높이는 주체 높임 표현이지 객체 높임 서술어가 아니다. 또한 이 문장의 ‘손자가 무슨 말을 해도’는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다. 세 조건을 모두 갖춘 표현으로 고치면 ‘손자는 할머니께 무슨 말씀인지 여쭈었다.’와 같이 쓸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③의 ‘모시고’와 ④의 ‘하셨다’에 높임 표현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고르기 쉽다. 그러나 ‘모시다’는 객체 높임이고 ‘-시-’는 주체 높임이므로 높임의 대상이 다르다. 또한 각 조건을 따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문장에 세 조건이 모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체언 앞의 관형사를 찾고, 다음으로 서술어가 ‘누구에게·무엇과·어디에’ 같은 부사어를 반드시 요구하는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높임의 대상이 주어인지 객체인지 구별한다. 세 항목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답에서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새 옷’은 관형사, ‘할아버지께’는 필수적 부사어, ‘드리다’는 객체 높임이다. ‘-시-’는 주체 높임이고 ‘드리다·모시다·여쭈다’는 객체 높임이다.

NoteBase

문 16.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최근 '빙하게이트'라 불리는 IPCC 평가보고서의 히말라야 빙하 소멸시기 예측 오류논란과 '기후게이트' 사건 등으로 IPCC의 신뢰는 크게 손상받기 시작하였다. 신뢰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쟁은 다시 가열되었고, 올 초 미국 동부 폭설과 관련하여 온난화가 허구라는 주장이 미국 공화당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하였다. 급기야는 최근의 한파, 폭설 등을 고려해 볼 때 소빙하기가 도래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
> 이렇듯 문제가 대두되면서 온난화를 둘러싼 옹호론자와 비판론자 사이에 정치 대결화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즉, 온난화 이론 비판세력은 IPCC에 참여한 과학자들이 거대 금융회사와 녹색사업 관련 업체들의 기후변화 예측 자문역으로 일하며 막대한 돈을 받아왔다는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지구온난화 지지론자들은 지난 30여 년간 회의론자들의 논리가 거듭 부정됐지만, 최근 몇 가지 사태를 계기로 회의론자들이 지구온난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
> 논란이 커지자, IPCC는 히말라야 빙하 소멸 예측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즉 제4차 평가보고서의 히말라야 빙하 예측자료의 오류를 확인하고 의장단 명의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일부 언론매체가 UN의 자연재해와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추가로 오류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① IPCC가 신뢰를 잃게 된 이유는 빙하게이트와 기후게이트 때문이다.
② 온난화 이론 비판세력은 IPCC에 참여한 과학자들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③ 온난화 이론에 대한 옹호론자와 비판론자 사이의 정치적 대립양상이 나타났다.
④ IPCC는 빙하게이트 평가서 오류와 온난화 이론 오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제시문에 나타난 IPCC 신뢰 훼손의 원인, 온난화 논쟁의 양상, 논란에 대한 IPCC의 대응을 선지의 표현과 정확히 대조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내용 일치 판단은 선지의 핵심 주체·대상·행위를 제시문의 진술과 대조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IPCC는 히말라야 빙하 소멸 예측 오류는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했지만, 일부 언론이 추가로 지적한 오류에는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선지별 해설

① O — 첫 문단에서 '빙하 게이트'와 '기후 게이트' 사건 등으로 IPCC의 신뢰가 크게 손상되기 시작했다고 하므로 제시문과 일치한다.
② O — 둘째 문단에서 비판 세력이 IPCC 참여 과학자들이 금융회사와 녹색사업 관련 업체의 자문역으로 일하며 돈을 받았다는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고 하므로 제시문과 일치한다.
③ O — 둘째 문단에서 문제가 대두되면서 온난화를 둘러싼 옹호론자와 비판론자 사이에 정치적 대결이 나타났다고 하므로 제시문과 일치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빙하게이트 평가서 오류와 온난화 이론 오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이다. 올바르게는 IPCC가 히말라야 빙하 소멸 예측자료의 오류를 확인하고 유감을 표명했으며, 일부 언론이 추가로 지적한 오류에 대해서는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IPCC가 온난화 이론 자체의 오류를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한 것은 아니다.

오답 포인트

④는 '오류 인정과 유감 표명'이라는 제시문의 일부 표현을 이용하면서 그 대상을 '히말라야 빙하 예측자료'에서 '온난화 이론'으로 넓혀 바꾸었다. 또한 추가 오류 지적에 대한 IPCC의 실제 대응은 유감 표명이 아니라 반박 성명 발표였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내용 일치 문제에서는 선지마다 '누가, 무엇에 대해, 어떤 대응을 했는가'를 나누어 제시문과 대조한다. 특히 '일부 오류 인정'을 '이론 전체의 오류 인정'으로 확대하거나, '반박'을 '유감 표명'으로 바꾼 선지를 가려낸다.

암기 포인트

빙하 예측 오류에는 인정·유감, 추가 오류 지적에는 반박이다.

NoteBase

문 17. 밑줄 친 단어의 의미 관계가 <보기>의 ㉠, ㉡과 유사한 것은?

< 보 기 >

○ 민수는 점심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불렀다.
○ 바다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배를 보아라.

① 철수는 다방면으로 발이 넓다.
그는 발을 재촉하며 걸었다.
② 고향으로 가는 길이 수월했다.
그 문제는 풀어낼 길이 없다.
③ 심한 운동을 해서 다리에 쥐가 났다.
영희는 아슬아슬하게 다리를 건넜다.
④ 그는 손을 힘껏 뻗어 물건을 집었다.
이번 일은 손이 부족하여 힘이 든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형태는 같지만 의미 사이에 관련성이 없는 동음이의어와, 하나의 중심 의미에서 여러 의미가 파생된 다의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동음이의어: 소리와 표기는 같지만 뜻 사이에 관련성이 없는 단어이다. <보기>의 '배'는 '음식을 먹는 신체 기관'과 '물 위를 다니는 선박'을 뜻하므로 동음이의 관계이다.
다의어: 한 단어의 중심 의미에서 서로 관련된 여러 의미가 파생된 단어이다.
판단 기준은 두 의미가 서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발이 넓다'의 '발'은 활동 범위나 인간관계가 넓다는 뜻이고, '발을 재촉하다'의 '발'은 신체 부위를 뜻한다. 활동 범위라는 의미가 신체 부위인 발의 의미에서 비유적으로 확장되었으므로 다의 관계이다. 틀린 판단을 고치면 '두 발은 동음이의 관계가 아니라 다의 관계이다.'가 된다.
② X — '고향으로 가는 길'의 '길'은 사람이 다니는 통로이고, '풀어낼 길이 없다'의 '길'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나 수단이다. 방법이라는 의미가 통로라는 의미에서 확장되었으므로 다의 관계이다. 틀린 판단을 고치면 '두 길은 동음이의 관계가 아니라 다의 관계이다.'가 된다.
③ O — '다리에 쥐가 났다'의 '다리'는 사람의 신체 부위이고, '다리를 건넜다'의 '다리'는 물이나 길 위를 건너도록 만든 시설이다. 두 의미 사이에 관련성이 없으므로 <보기>의 '배'와 같은 동음이의 관계이다.
④ X — '손을 힘껏 뻗다'의 '손'은 신체 부위이고, '손이 부족하다'의 '손'은 일을 하는 사람이나 노동력을 뜻한다. 노동력이라는 의미가 신체 부위인 손에서 확장되었으므로 다의 관계이다. 틀린 판단을 고치면 '두 손은 동음이의 관계가 아니라 다의 관계이다.'가 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모든 선지에서 밑줄 친 단어의 형태가 같다는 점만 보면 구별할 수 없다. 특히 ①의 '발', ②의 '길', ④의 '손'도 문장마다 뜻이 달라 보이지만, 앞뒤 의미가 비유적으로 연결되므로 동음이의어가 아니라 다의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같은 형태의 두 단어가 나오면 먼저 각 문맥에서의 뜻을 바꾸어 쓴 뒤, 두 뜻이 비유나 기능을 통해 연결되는지 살핀다. 의미가 연결되면 다의어이고, 연결되지 않으면 동음이의어이다.

암기 포인트

뜻이 이어지면 다의어, 뜻이 끊어지면 동음이의어이다. 배(신체 기관/선박)와 다리(신체 부위/시설)는 뜻이 끊어진다.

NoteBase

문 1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만약 어떤 시장에서 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높은 상태에 놓여 있다면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태를 초과공급 상태에 있다고 말한다. 이 경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반대로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는 상태를 초과수요라고 말한다. 초과수요의 상태에는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런데 시장경제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이러한 작용이 공연장에서는 잘 작동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연표는 남아돌거나 혹은 모자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시장수요곡선으로 설명할 수 있다.
>
> 공연장에서의 시장수요곡선은 보통의 시장수요곡선과 사실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선호도, 소득 등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수요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데, 수요곡선은 수요량이 가격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보여준다. 수요의 법칙에 의하면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요량이 감소하고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문화 예술품 역시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갖는 것이 통상이다. 반대로 공급의 법칙에 의하면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공급량은 증가하여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 일반적으로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가격이 결정된다.
>
> 그러나 공연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공연의 티켓 가격은 사실 대부분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결정된다. 즉, 수요가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가격이 측정되어 공개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도 가격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공연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해서 갑자기 가격을 올릴 수도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가격을 내리기가 어렵다. 전자의 경우에는 티켓을 나중에 산 사람들의, 후자의 경우에는 먼저 산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티켓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공연자가 공연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에 공연을 더 늘릴 수도 없다. 공연장은 사전에 특정 장소로 결정되기 때문에 공연당 관람할 수 있는 관객을 늘리는 방법도 쉽지 않다.
>
> 공연이 인기를 끌게 되면 암시장이 형성되기 쉽다. 미리 티켓을 구한 사람들이 미처 티켓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웃돈을 받고 파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공연이 인기가 없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수요가 없다고 해서 가격을 무작정 낮추게 되면 큰 손해를 보게 되고, 그렇다고 관객이 없는 상태에서 공연을 계속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럴 경우, 공급자들은 깜짝 이벤트 등을 활용하여 티켓 가격을 한시적으로 싸게 판매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한다. 또한 정부가 초과공급 상태에 놓여 있는 공연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주기도 한다. 이는 예술의 가치를 단순히 수요의 여부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다양한 예술적 성과와 번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①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은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② 공연 티켓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여 공연 기획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는다.
③ 공연 티켓에 대한 초과공급이 발생하게 되면 예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주기도 한다.
④ 공연 티켓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되기 어렵다.

정답 2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초과공급과 초과수요의 일반적인 가격 조정 원리와, 공연 시장에서 그 원리가 그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이유를 본문에서 정확히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초과공급은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상태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초과수요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로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나 공연 티켓은 공연 전에 가격이 정해지고, 가격을 바꾸면 기존 구매자나 이후 구매자의 반발이 생기며, 공연 횟수와 관객 수에도 한계가 있어 일반 시장처럼 가격과 공급량을 쉽게 조정하기 어렵다.

선지별 해설

① O —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초과공급 상태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본문의 첫 문단과 일치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여 공연 기획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는다'이다. 본문에서는 공연 수요가 많아도 티켓 가격을 갑자기 올리기 어렵고, 가격을 올리면 나중에 티켓을 산 사람들의 반발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공연 티켓에 초과수요가 생겨도 가격을 갑자기 올리기 어려우며, 가격을 올리면 구매자의 반발이 생길 수 있다'이다.

③ O — 본문은 초과공급 상태의 공연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며, 그 목적은 예술의 가치를 수요 여부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다양한 예술적 성과와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

④ O — 본문은 일반 시장에서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교점에서 균형가격이 정해지지만, 공연 티켓은 공연 전에 가격이 결정되고 이후 조정도 어려워 그 원리가 그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오답 포인트

일반 시장에서 초과수요가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원리를 공연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②를 맞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이 글의 핵심은 공연 시장에서는 사전 가격 결정, 구매자 반발, 공연 횟수와 관객 수의 한계 때문에 가격과 공급량의 조정이 어렵다는 예외에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일반 시장의 원리와 공연 시장의 예외를 나누어 읽는다. 선지에 '초과수요이므로 가격이 오른다'는 일반 원리가 나오면, 본문에 제시된 가격 조정의 제약 조건까지 반영했는지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일반 시장은 초과공급이면 가격 하락, 초과수요이면 가격 상승이지만, 공연 시장은 사전 가격 결정과 수량 한계 때문에 조정이 어렵다.

NoteBase

문 19. 다음 빈칸에 들어갈 시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사월이라 맹하되니 (　　)
> 비온 끝에 볕이 나니 일기도 청화하다
> 떡갈잎 퍼질 때에 뻐꾹새 자로 울고
> 보리 이삭 패어나니 꾀꼬리 소리 난다
> – 정학유, '농가월령가' –

① 입춘 우수 절기로다
② 경칩 춘분 절기로다
③ 청명 곡우 절기로다
④ 입하 소만 절기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작품 속 계절 표현과 24절기의 순서를 연결하여 빈칸에 알맞은 시구를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농가월령가」는 달마다 농촌의 일과 풍속을 노래한 작품이다. 제시된 대목의 '사월'과 '맹하'는 음력 4월, 곧 초여름을 뜻한다. 24절기를 두 절기씩 월별로 대응하면 정월은 입춘·우수, 2월은 경칩·춘분, 3월은 청명·곡우, 4월은 입하·소만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입춘·우수'는 정월에 해당하는 절기이므로 '사월이라 맹하되니'와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사월이라 맹하되니 입하 소만 절기로다'이다.
② X — '경칩·춘분'은 2월에 해당하는 절기이므로 초여름인 맹하와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빈칸에 '입하 소만 절기로다'가 들어간다.
③ X — '청명·곡우'는 3월에 해당하는 절기이므로 4월의 절기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4월의 두 절기인 '입하·소만'을 써야 한다.
④ O — '입하·소만'은 4월에 해당하는 절기이다. '맹하'가 초여름이라는 뜻이고, 뻐꾸기 울음과 보리 이삭 같은 뒤의 풍경도 초여름의 계절감과 어울린다.

오답 포인트

보기의 절기는 모두 봄에서 초여름까지 순서대로 이어지므로 이름만 보고 고르기 쉽다. 그러나 시구에 직접 제시된 '사월'과 초여름을 뜻하는 '맹하'를 함께 확인하면 '입하·소만'으로 좁혀진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월령체 작품의 빈칸은 먼저 달과 계절어를 찾고, 그 달에 해당하는 두 절기를 순서대로 대응한다. 정월 입춘·우수, 2월 경칩·춘분, 3월 청명·곡우, 4월 입하·소만의 흐름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사월·맹하·초여름은 입하·소만이다.

NoteBase

문 20. 다음 중 화자가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른 것은?

① 청하(靑荷)에 바볼 ᄡᅡ고 녹류(綠柳)에 고기 ᄭᅵ여
노적화총(蘆荻花叢)에 ᄇᆡ ᄆᆡ야 두고
일반청의미(一般淸意味)를 어닉 부니 아ᄅᆞ실가

② 짚 방석(方席) 내지 마라 낙엽(落葉)엔들 못 안즈랴
솔불 혀지 마라 어제 진 ᄃᆞᆯ 도다 온다
아히야 박주산채(薄酒山菜)ᄅᆞ망졍 업다 말고 내여라

③ 백설(白雪)이 ᄌᆞ자진 골에 구르미 머흐레라
반가온 매화(梅花)ᄂᆞᆫ 어닉 곳에 픠엿ᄂᆞᆫ고
석양(夕陽)에 홀로 셔 이셔 갈 곳 몰라 ᄒᆞ노라

④ 말 업슨 청산(靑山)이요, 태(態) 업슨 유수(流水)ㅣ로다
갑 업슨 청풍(淸風)이요, 님ᄌᆞ 업슨 명월(明月)이라
이 ᄌᆞᆼ(中)에 병(病) 업슨 이 몸이 분별(分別) 업시 늙으리라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자연을 풍류와 안분지족의 공간으로 바라보는 태도와, 자연물을 현실 인식과 내면의 고뇌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활용하는 태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연 친화적 태도는 자연 속에서 욕심을 버리고 소박한 풍류와 만족을 누리려는 태도이다. 반면 상징적 자연 인식은 자연물을 현실 상황이나 화자의 정신적 가치와 고뇌를 나타내는 대상으로 활용하는 태도이다.
①·②·④는 자연 속 삶의 즐거움과 만족을 드러내지만, ③은 자연물을 통해 혼탁한 현실과 지조 있는 존재에 대한 갈망, 갈 곳을 잃은 화자의 고뇌를 드러낸다.

선지별 해설

① X — 맑은 여름날과 푸른 버들, 꽃이 핀 물가에서 고기를 잡으며 자연의 맑은 흥취를 즐긴다. 이 선지를 다른 태도로 보는 것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자연 속 풍류와 한가로움을 즐기는 태도이다.
② X — 짚방석이나 솔불이 없어도 낙엽과 달빛을 이용하고, 소박한 술과 산나물로 만족한다. 이 선지를 다른 태도로 보는 것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자연에 순응하며 안분지족하는 태도이다.
③ O — 거친 구름, 찾을 수 없는 매화, 석양에 갈 곳을 몰라 하는 모습은 단순한 자연 예찬이 아니다. 구름과 매화 등의 자연물을 혼탁한 현실과 지조 있는 존재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활용하여 화자의 현실적 고뇌를 드러내므로 나머지 선지와 태도가 다르다.
④ X — 말 없는 청산, 흐르는 물, 청풍과 명월을 벗 삼아 근심 없이 늙고자 한다. 이 선지를 다른 태도로 보는 것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자연 속에서 무욕과 안분지족의 삶을 누리려는 태도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네 작품에 모두 자연물이 등장한다는 공통점만 보면 태도의 차이를 놓치기 쉽다. 특히 ③의 '매화'를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물로 보면 안 된다. '구루미 머흐레라', '갈 곳 몰라'와 결합된 매화는 현실 인식과 화자의 고뇌를 드러내는 상징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연물이 등장할 때 먼저 화자가 그 속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는지, 아니면 자연물에 현실 상황·가치·감정을 상징적으로 담는지 확인한다. 풍류·소박한 음식·근심 없는 삶은 자연 친화와 안분지족에 가깝고, 어두운 배경·탐색·방황은 현실적 고뇌에 가깝다.

암기 포인트

①·②·④는 자연 속 풍류와 안분지족, ③은 자연물을 통한 현실 인식과 고뇌이다.

NoteBase